

보 도 해 명 자 료

(16.6.30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미래부 vs 산업부 부처간 기싸움에 표류하는
원전 폐로 (16.6.30. 아주경제 11면)

1. 기사내용

- ☐ 원전해체센터 설립이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산업부 간 기싸움으로 무산됐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원전해체센터는 미래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획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원전 해체
- ☐ 정부는 지난해 10월 「원전해체정책방향」을 수립하고,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원전해체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음
 - 96개 해체기술을 식별하고, 현재 미확보된 핵심기술 17개와 상용화기술 17개에 대해 기술을 개발할 계획임
- ☐ 원전해체센터와 관련하여 부처간 ‘밥그릇싸움, 불협화음정책’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,
 - 향후 미래부와 산업부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전해체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임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환경과장 박동일 (044-203-5340)
한주현 사무관 (044-203-5344)